천만관광 임실시대 실현 박차

임실군, 내달 1일 옥정호 출렁다리·붕어섬 생태공원 재개장

임실방문의 해인 올해 전북을 넘어 전국적 인기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는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이 내달 1일 재개장한다.

군은 올해 1월부터 2월 말까지 두 달여 간 붕어섬 내부 시설 보강을 위해 휴장에 들어갔던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을 재개장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을 찾은 관광객은 46만여명으로 지난 2022년 10월 옥정호 출렁다리 개통 이후 붕어섬 생태공원에는 개장 2년여 만에 132만여명이 방문, 전국적 인기 관광지로 급부상했다.

군은 재개장을 앞두고 붕어섬 생태공원을 비롯한 옥정호 관광지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설들의 개선과 관리에 힘쓰고 있다.

요산공원, 붕어섬 생태공원의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 연출을 위해 오는 4월까지 단계별로 경관꽃 단지를 조성하고, 쉼터, 탐방로 등 제반 시설을 지속 확대해 나갈 전망이다.

또한,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 옥정호 관광호텔과 붕어섬, 섬진강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5.2km 케이블카 등 민간개발 등 옥정호 권역 관광개발도 추진하는 등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을 발굴하고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3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옥정호 출렁다리와 붕어섬 생태공원에 반려견과의 동반 입장 시범 사업도 시행한다.

이번 시범 사업은 1500만 반려인 시대를 맞아 늘어나는 반려동물 문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임실군이 가장 핫한 관광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을 처음으로 반려동물에 개방하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붕어섬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장애인 보조견 제외)나 고양이 등 동물은 동반 입장이 불가했다.

하지만 군은 시범운영을 거쳐 실내공간을 제외한 야외 지정 구간에 동반입장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용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10kg 초과 중·대형견 및 맹견, 질병이 있는 동물은 출입이 제한된다.

옥정호 출렁다리 및 붕어섬 생태공원 운영시간은 휴장일인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날 평일 휴장) 제외하고는 3월부터 10월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 동절기인 11월부터 12월까지는 10시부터 17시까지이며, 입장 마감은 운영시간 1시간 전이다.

심 민 군수는 "2025년은 임실방문의 해로 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할 것이다"며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은 봄과 가을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관광지로서 천만관광 임실시대를 실현하는 요충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6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 국무총리 표창 수상

최영일 순창군수

순창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정보공개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달성해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24일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실태 등을 평가하며, 2024년에는 총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평가내용은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의 4개 분야 11개 지표에 대해 이뤄지며, 기관 유형별 평가순위를 기준으로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4개 등급으로 나뉜다.

군은 정보공개 종합평가가 시행된 2019년부터 6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으며, 2024년 평가에서는 충실한 사전정보 및 원문공개와 정확한 정보공개 처리로 고객만족도가 향상되는 등 모든 평가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96.81점을 획득하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82개 군 단위 최고점을 기록했다.

최영일 군수는 "전 직원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아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주요 정책정보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군민에게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가족센터, 연간 누적 3만명 다녀가

순창군 가족센터가 지난 한 해 동안 총 누적 3만여명이 다녀가 지역 내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핵심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다문화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맞춤형 복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순창군 가족센터는 가족의 유형별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며 지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순창군에는 307세대의 다문화 가구가 거주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모국방문지원,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 학습, 결혼이주여성 원어민강사 지원 등 맞춤형 복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족센터에는 총 19명의 종사자가 함께하고 있으며, 상담사, 언어발달 지도사, 외국인지원상담사, 아이돌보미, 통번역사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가족들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방문교육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이중언어학습지원 △아이돌봄지원 △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다문화 어울림한마당 행사 등 다양한 가족 친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문화 자녀 370여명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군은 올해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새로운 가족센터를 건립 중이다. 총 92억 5천만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은 순창읍 장류로 407-11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2,482㎡) 규모로 조성되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확대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순창군이 대기오염을 줄이고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물인터넷(IOT) 설치를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설치가 지원되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기기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해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지능형 기술이 부여된 기기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오는 28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선정된 사업장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비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4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이다.

신청 기간은 이달 28일까지이며, 접수는 순창군청 3층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춘향 세일 페스타' 동행축제와 함께 진행

남원 춘향제전위, 지역 상인·축제 참가자들에 다양한 혜택 제공

남원 춘향제전위원회는 2025년 제95회 춘향제 기간, 남원 지역 상가에서 다양한 특산물과 제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는 '춘향 세일 페스타(Sale Festa)'를 동행 축제와 함께 진행한다.

춘향제는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간 광한루원 일원에서 '춘향의 소리, 세상을 열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이번 행사에서는 동행축제와 협력해 지역 상인들과 축제 참가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따라서 음식점, 숙박업소, 사진관 등 다양한 업종의 상점이 '춘향 세일 페스타' 할인 행사에 참여하며,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남원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한 쇼핑 경험을 선사할 계획이다. 또한, 동행축제와 연계된 다양한 이벤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춘향세일 페스타' 할인 매장에서 3만원 이상의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축제기간 동안 '페스타 홍보 부스'에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춘향제전위원회는 '춘향 세일 페스타'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 춘향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업체 정보, 할인율, 이벤트 등을 소개하며, 참여 업체임을 알리는 옥외 광고물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춘향 세일에 참여할 지역 상점을 모집, 참여 대상은 관내 음식점, 카페, 숙박업소, 전통시장, 특산물 판매점, 사진관 등 다양한 업종으로, 할인 행사와 프로모션을 통해 춘향제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메일 및 QR코드 스캔 후 신청서 제출하면 되고, 선정된 업체에는 홍보 지원과 함께 춘향제 공식 홈페이지 및 온·오프라인 광고를 통한 홍보 혜택이 주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춘향제전위원회(063-620-5779) 또는 남원춘향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보건소,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점검 시행

남원시 보건소(소장 한용재)는 학교 개학을 대비해 24일부터 26일까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63개소 점검을 시행한다.

점검 대상은 학교 주변 200m 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의 학교 매점, 문구점, 분식점, 편의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이다.

이번 점검은 건강한 식품 구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1명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4명으로 점검반을 구성 △조리시설·도구 위생 관리 △식재료 보관 상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여부 △냉동·냉장식품 보관 기준 준수 여부 등 식품의 위생적 취급 사항을 점검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도 함께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임실군, 환경개선부담금 3월 선납 신청 시 10% 감면

임실군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에게 절세 혜택 제공함으로써 체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선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선납 제도는 선납 시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이번에 신청하면 9월에 부과될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서 3월에 부과하게 된다.

선납 신청·접수는 2월 24일부터 3월 7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되며, 군청 환경보호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신청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면 금융기관 방문, 납부 전용 계좌(가상계좌) 이체, 현금입출금기(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선납 후 매매, 폐차 말소나 타 시군 주소 이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환급이 가능하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소방서, 난방기구 화재 예방 수칙 당부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는 한파가 지속됨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 증가에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난방기구 화재 주요 원인으로는 전기히터, 전기장판, 온풍기 등의 과열, 전기 누전, 관리 소홀 등이 꼽혔다. 이에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안전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안전 수칙으로는 △KC 인증마크가 있는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 전 상태를 점검하기 △가연성 물질(커튼, 침구 등)을 난방기구 주변에서 멀리 두기 △외출하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 반드시 전원을 끄고 플러그를 뽑기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난방기구의 전선과 플러그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손상 여부를 확인 등이다. 또한,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주택용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권장했다.

김승현 소방서장은 "작은 부주의가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든 시민이 안전 수칙을 지켜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